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민수돕기 운동에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 2004-8234
도움 주실 곳: 073-02-02889-0(부산은행 예금주 김영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원이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 사업으로 보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공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장이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보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나눔성금 보내주시 분

울산 한마음선원-7만17850원
박상환-10만원
윤선애-1만원
이창근-1만원
총누적금액 40,554,940원

“민수야, 웃음은 희망이란다”

본사, 급성백혈병 투병 민수 돕기 모금운동 전개

바람 앞의 등불처럼 훑겨져버릴 듯한 네 살배기 민수의 소식이 한 불자의 제보로 현대불교신문사에 전해졌다. 급성 골수성백혈병, TV에서만 보던 남의 일을 하루아침에 내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민수 가족의 소식을 접하고 현대불교신문사 나눔의 손잡기를 통한 모금운동을 결정하게 됐다.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생명 민수의 환한 웃음을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에 불자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모금 운동은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펼쳐 나가게 된다.

은 동네 어른들의 귀염을 한 몸에 독차지 하던 민수(4). 민수는 '웬지 핏기가 없어 보인다'는 동네 어른들의 걱정 어린 말끝에 병원으로 향했다가 급성 골수성백혈병이라는 하늘 무너지는 소식을 접했다. 환담기가 있겠구나 하고 동네 병원을 찾았던 민수 어머니는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진단에 내려앉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학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4월 29일 오후 5시였다. 설마 하던 기대는 무너지고 민수는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5월 30일 현재, 꼬박한 달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민을 수가 없었어요. 뛰어들기 좋아하고 건강하기만 하던 아이가...”

엄마 김귀여(42)씨는 지금도 민을 수가 없다는 듯한 눈길을 민수에게 보낸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4살 민수와 엄마 김귀여씨. 어린 나이에 발병해 주병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4년전 형 심장수술로 가계 휘청...친척집서 생활
치료 기간 최소 5년 · 치료비 3천만원 도움 절실

다. 아버지 김형찬(40)씨의 놀란 가슴은 민수의 발병 이후 보름동안 식음을 전폐했을 정도. 그도 그럴 것이 큰 아들 성수(7)도 3살 때 심장판막수술을 받으며 고비를 넘긴 터라 민수마저 백혈병 진단을 받자,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 뿐 머리가 하얗게 비는 듯했다.

무작정 아이에게 매달리며 하며 민수 병상만 지키길 한달 째. 처음 입원당시 9만까지 올라갔던 민수의 백혈구 수치는 이제 1만 정도로 떨어졌다.

4번으로 예정된 항암 약물치료도 2회 차까지 마쳤다. 다행히 민수는 항암 치료를 의사들도 대견해할 만큼 잘 견뎌내고 있어 그나마 환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정상적인 경우 4-5000의 백혈구 수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급성 골수성백혈병의 경우 10만, 심하면 20만 까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혈소관이 모자라 조금만 상처가 나도 지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열이 지속되면 곧바로 호흡관으로 이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져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까 때문이다.

병실에서 생글거리며 웃고 있는 민수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지도 모를 위험에 직면했었다. 민수 아버지는 언제 어느 때 약화될지 모르는 아이의 상태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 수가 없어 비정규직 일자리라마져 휴직해야 했다.

그러나 보니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큰 애의 수술비로 생계가 휘청거린 후 아직도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어 치료비 걱정이 가슴을 짓누른다. 민수의 치료 기간은 최소 5년. 최소한의 치료비 3000만원. 치료비 걱정으로 사방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답이 없는 곳이 없어 애가 탄다. 민수 생명의 불꽃을 이어줄 도움의 손길이 아쉽기만 하다.

을 될 수가 없어 비정규직 일자리라마져 휴직해야 했다.

그러나 보니 치료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큰 애의 수술비로 생계가 휘청거린 후 아직도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어 치료비 걱정이 가슴을 짓누른다. 민수의 치료 기간은 최소 5년. 최소한의 치료비 3000만원. 치료비 걱정으로 사방에 도움을 손길을 요청해 놓았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답이 없는 곳이 없어 애가 탄다. 민수 생명의 불꽃을 이어줄 도움의 손길이 아쉽기만 하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가장 장안사를 찾아 연등을 달았다는 민수 엄마의 간절한 기원을 부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민수의 웃음 때문만은 아니다. 만 중생의 고통을 편안케 하리라는 원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기에 희망이 웃음과 오버랩 된다. 천미희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끓이고 무치고... 김음복지관 사랑봉사회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서 보람을 찾고 있다.

김음복지관 사랑봉사회 토요일봉사팀

“시원한 국수 한사발 情이 넘쳐요”

5월 28일 김음복지관(관장 제원) 식당은 오전 9시부터 점심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스렌지에서는 한 숟가락 물이 끓고 있고 주방 한 칸에서는 보살들이 손끝으로 무쳐낸 호박나물과 김치가 준비돼 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복지관의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은 '사랑봉사회(회장 이문희) 토요일봉사팀'이다.

'사랑봉사회' 토요일봉사팀은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대로 김음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주력한다. 자비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다 김음복지관이 설립된 92년부터 복지관과 함께 해온 세월, 김장 명절음식 마련 등 율령이 필요할 때마다 묵묵히 일해왔다. 그동안 마음이 답답해 질 정도로 어려운 이들도 많이 보았다.

“지금 강북은 개발이 많이 됐지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뜻한 식사 한끼 부어달라요. 감사하면 우리가 나서야죠.”

임순자(73) 강영은(68) 보살이 서로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랑봉사회'에서도 가장 오랜시간 봉사를 해 온 이들은 그저 정성을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자원봉사자로 보내서 그런 것일까, 사랑봉사회는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도 즐겁다. 화합이 잘 되다 보니 일은 절로 신명난다.

그러나 토요일마다 끓여내는 국수만 50다발, 허리도 아프고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래도 보살들은 힘주어 말한다.

“봉사 덕분에 이렇게 건강할걸요.” 그래도 아쉬움은 있다. 이제는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아직도 망설이며 선뜻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한 단 생각이 중요해요”

사랑봉사회는 젊은 사람들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복지관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한 웃음을 보낸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어르신 속웃 후원해 주세요

김음복지관에서는 현재 급식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관 인근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목욕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의 속웃이 항상 부족하다. 사랑봉

사회 토요일팀은 “복지관 세탁기가 낡아 세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줄 것을 호소했다. (02)985-0161

나라번영 민족평화통일 불교종흥기원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20여년간 김장도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새봄에 봉행한 제1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경 卍下대종사께서 친히 인식 증명봉어를 전하시고 조계종 총무원장 송철주스님, 이소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하여 원만히 봉행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대김장대제전을 봉행하여 금년 10회에 이르는 동안 한국불교문화의 높은 경지와 예술이 하나로 조화를 이룬 대제전이라는 찬탄과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은 불교의 범구대유형 제4권에 상재해 실하여져 있습니다. 10회제전을 원만히 희망하고 불심충만한 경남에서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회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대법회 : 2005년 6월 10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5층 특별대법회장 전시관
● 작 품 전 : 2005년 6월 10일 ~ 6월 14일 (5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강좌 : 작품전 기간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불교계 크스님과 교수님의 특별대강좌
● 불자연예인 공연 : 설운도, 김홍국, 이호연, 김홍신, LMB singers 등 공연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창원포교당 九龍寺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창원시 소담동 509
TEL. 055)251-9741~4, 255-6359 FAX. 055)298-528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자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화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래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증후,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경화, 간경화, 약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 화약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생기증상),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뇌를 조금만 먹어도 주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
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靑朋에
마음으로 敬禮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